

# 위대한 인간이 운명처럼 맞서야 했던 고독과 아픔

“머리가 꼬리를 물고 도는 뱀과 같은 역사를 오늘 다시 쓰고 내일 또 새롭게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왜냐고 묻지 않으면 그 어리석은 반복과 순환을 이해할 방도가 없다. 무엇이 사로잡혀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서야 탈출을 시도할 수조차 없다.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길을 찾을 수 없다. 그리하여 다시 질문한다. 왜, 대체 무엇 때문이냐고?”(작가의 말 중에서)



백범, 거대한 슬픔

김별아 지음

그의 위대한 업적 뒤에는 운명과 맞서야 했던 한 인간의 고독과 아픔이 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자 백범 서거 70주년, 역사적 기록을 행간에 숨겨진 그의 인간적 면모를 그리는 소설이 출간됐다.

베스트셀러 '미실'의 작가 김별아가 펴낸 '백범, 거대한 슬픔'은 나라 잃은 설움을 딛고 선 자의 고독과 가슴에 맺힌 말을 풀어나간다. 모두가 알지만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간 백범의 면모가 소설 곳곳에 드러워진다.



작가는 “한국 독립 투쟁사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긴 백범 김구의 생애를 쓰는 동안 나는 줄곧 묻고 또 물었다. 왜 그렇게 살고 왜 그렇게 죽어야 했냐고. 그에게 묻고, 내게 물었다”며 “오직 끝없는 질문 속에서만 그를 이해할 길을 찾을 수 있기에, 이미 안다고 믿었던 답들을 거듭 묻고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작가는 ‘나라를 잃고 상갓집 개처럼 떠도는 우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프게 직시한다. 나라 잃은 설움을 딛고 선 자의 고독이자, 김별아가 소설로 형상화한 백범 김구의 가슴에 맺힌 말들이기도 하다.

소설은 해방을 맞아 조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백범의 회상 장면을 계기로 시작된다. 일본 육군 중위 쓰치다를 처단하며 시작된 ‘냉혹한 슬픔’은 아버지에게 대한 ‘쓰러린 슬픔’과 약혼녀 여옥을 떠나보낸 ‘아련한 슬픔’으로 이어진다.



한국을 앞두고 상하이 공항에 도착한 임시정부 요원들. 김구선생을 중심으로 왼쪽이 김규식과 조완구, 오른쪽이 눈물을 흘리는 이시영 선생, 앞줄 가운데 하얀 셔츠를 입은 소년인 우당 이회영 선생 손자인 이종찬이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생과 사의 가혹한 경계에서 그는 ‘슬픈 밥’으로 수감 생활을 견딘다. 그러나 이마저도 잠시 아내를 잃는 ‘자옥한 슬픔’에 휩싸인다.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봉창, 윤봉길과의 동지애는 고독하고 아픈 슬픔으로 다가왔으며 일제의 지명 수배자가 되며 떠돌았던 시간은 ‘흐르는 슬픔’으로 그의

삶에 덧씌워진다. 그러나 어머니를 잃는 ‘거룩한 슬픔’이 다시 찾아오니, 백범의 생애는 온통 슬픔으로 점철된 생애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한 질곡의 가운데서도 백범은 김창암에서 김창수, 김두호, 원종, 김두래, 백정선, 장진구, 김구로 여덟 번 이름을 바꾸며 살아야 했다. 피할 수 없었던 슬픈 슬픔을 감내하며 결전의 그날을 기다리던 중 갑작스레 찾아온 해방, 마침내 김구는 솟구쳐 오르는 ‘슬픔의 축제’와 맞닥뜨린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드높여 과시할 만한 휘황한 깃발이 아니었다. 쫓기고 쫓겨나고 물에서 물에서 이리저리 피난하며 가까스로 지켜온 찢겨진 깃발이었다. 누더기였다. 하지만 그 허락기에 더욱 내릴 수 없는, 피와 땀과 눈물로 얼룩진 투쟁의 상징이었다.”

소설 속 백범의 마지막 독백은 독립투사들의 처절한 아픔을 대변한다. 또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바른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해남출판사·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수집가의 철학

## 이병철 지음



우리나라에는 세계 최고이자 유일한 휴대전화 전문 ‘폰박물관’이 있다. 이곳의 관장은 30년간 언론인과 작가로 지내다 ‘폰’을 수집하기 시작한 이병철 씨. 그가 이번에 ‘수집가의 철학’이라는 책을 펴냈다. 책은 첨단 문명을 탑재한 휴대전화의 문명사를 주목한다. 지금까지 저자는 ‘세계 탐험사 100장면’, ‘석주명 평전’ 등을 책으로 엮어냈으며, 공통적으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일군 결과물이었다. 이번 책은 휴대전화를 모아 체계를 세우면서 60대 10년을 폰박물관에서 보낸 사연과 소회를 담았다.

그는 아무 조건 없이 폰박물관을 나라에 기증했다. “내가 오랜 세월 열정을 바쳐 모은 유물을 나라에 기증한 것은, 내 컬렉션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했기 때문이다. 개인이 소유하고 완상할 수준을 넘어선 컬렉션이니 내가 살았던 시대와 사람들을 기억해줄 우리 후손에게 남기는 것이 옳다. 내 컬렉션이 그저 그런 수준이었다면 나는 절대로 기증하지 않았을 것이다.”

책은 모두 6장으로 구성돼 있다. 1, 2, 3장은 테마 에세이로 유선전화, 휴대전화, 박물관 이야기와 함께 저자가 휴대전화를 수집해 폰박물관을 세우고 기증한 사연이 기술돼 있다. 4, 5, 6장은 폰박물관 전시 유물 3000여 점 중 37점을 가려 뽑아 이동통신의 역사를 연대순으로 구성하면서 기기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다뤘다. 또한 휴대전화의 문명사적 위상과 이에 얽힌 과학기술 이야기, 수집한 뒷이야기, 일상에서의 추억도 만날 수 있다.

그는 “어떤 물건이 아다움에 문화유산이 될지 당대에는 모른다. 세월이 흐른 뒤 그 물건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수집가의 몫이다”고 강조한다. <천년의 상상·1만9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

## 날개 환상동

## 김혜순 지음



몸으로 시를 쓰는 시인, ‘시하는’ 시인 김혜순이 올해로 등단 40돌을 맞았다. 김혜순이 전작 ‘죽음의 자서전’ 이후 3년 만에 13번째 시집 ‘날개환상동’을 펴냈다.

시인은 지난 2002년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 (문학동네)에서 “자신의 몸 안에서 뜨고 지면서 커지고 줄어드는 탈처럼 죽고 사는 자신의 정체성을” 보는 존재이다.

“그렇기에 여성의 몸은 무한대의 프랙털 도형”이라 했던 시인은 자신의 시가 “프랙털 도형처럼 세상 속에 뭍잡고 세상을 읽는 방법을 가지길 바란다”고 고백했다.

그렇게 시인은 40년을 시를 쓰고 시와 벗하며 걸어왔다. 평론가 이광호는 김혜순의 9번째 시집 ‘당신의 첫’의 해설에서 “고유의 실존적 목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인의 표현을 빌리면 그 실존의 실체는 ‘늘 순환하는, 그러나 같은 도형은 절대로 그리지 않는’ 파동”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5부로 나뉘어진 이번 시집에는 총 72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시집 첫머리 ‘새의 시집’은 전체 작품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이 시집은 책이 아니라/ 새하는 순서/ 그 순서의 기록// 신발을 벗고 난간 위에 올라서서/ 눈을 감고 두 팔을 벌리면/ 소매 속에서 깃털이 빠져나오는데/ 내게서 새가 우는 날의 기록/ 새의 뺨을 만지며/ 새하는 날의 기록...”

‘새하는 순서’, ‘새하게’ 등의 표현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모호하다. 시인은 새의 실체를 재현하거나 해석하지 않는다. 이광호 평론가는 “새하다”는 참과 거짓, 진실과 허구 같은 경계를 넘어서는 수행적 사건”이라 해석한다.

<문학과지서사·9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처칠, 끝없는 투쟁

## 하프너 지음·안인희 옮김



독일을 잿더미 속으로 밀어 넣은 전쟁 영웅, 윈스턴 처칠. 독일의 국민작가 제바스티안 하프너는 그를 한마디로 ‘전쟁의 사람’이라 말한다. 쿠바, 인도, 수단 등 전쟁에 뛰어들어 명성을 얻은 청년기부터 제1·2차세계대전 포화 속에서 돌보았던 비범함까지, 그는 말 그대로 전쟁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다.

제바스티안 하프너의 대표작, 윈스턴 처칠의 삶을 돌아보는 책 ‘처칠, 끝없는 투쟁’이 출간됐다.

책은 보잘것없는 시골귀족이었던 처칠 가문을 고위귀족으로 끌어올린 1대 말버러 공작 존 처칠, 서른 살 혜성처럼 정치무대에 등장해 부총리까지 오르내 4개월만에 모든 관직을 내던지고 파멸한, 윈스턴 처칠의 아버지 랜돌프 처칠에서 출발한다. ‘영원한 낙제생’ 윈스턴 처칠이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전쟁에 뛰어들며 환골탈태하는 모습과 하원의원, 장관, 총리를 두루 섭렵하며 ‘거물’이 돼 가는 정치인으로서의 모습 등 ‘투쟁’으로 얼룩진 그의 삶을 총체적으로 조명하며, 빛나는 모습뿐 아니라 우울증·무료함과 싸우며 서서히 소멸해간 말년의 처칠 함까지 여과없이 담아냈다.

저자는 1907년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나 나치의 폭정을 피해 영국으로 망명한 뒤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 언론 ‘옵저버’지에서 일했다. 독일과 영국 사이에서 ‘경계인’적인 입지를 가진 저자가 내린 처칠에 대한 평가는 이채로운데, 그가 반파시스트가 아니라 오히려 파시스트에 가까우며, 정치인으로서서는 로이드 조지나 네빌 체임벌린 등에 비해 하수라는 것 등 냉정하고 다면적인 평가를 내린다. <돌베개·1만6000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석유는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

## 최지웅 지음



279만 3000배럴. 지난 2016년 우리나라에서 하루 동안 소비된 석유의 평균 양이다. 운송 수단의 연료는 물론 플라스틱, 고무 등 소비재 생산 전반에 활용되는 등 현대 생활에서 석유는 필수불가결한 입지를 갖고 있다. 이같은 석유의 중요성은 개인의 경제적 삶을 넘어 중동 전쟁, 진주만 공습, 9·11테러 등 전쟁과 테러를 일으키며 육망과 이해관계의 근원적 요소가 됐다.

한국석유공사에서 근무 중인 최지웅씨가 석유가 국제 정치,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한 33개 장면을 엮은 책 ‘석유는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를 펴냈다.

저자는 파편적으로 흩어진 현대사의 조각들이 석유라는 키워드로 퍼즐이 맞춰질 수 있다고 말하며 유럽 연합의 설립, 블레어가 ‘부시의 푸들’이라 불린 이유 등 언뜻 보면 석유와 무관해 보이는 사례에서도 발견되는 석유와의 접점을 파헤친다.

책은 총 4부로 나뉘며 시대별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과 60년대부터 윈스턴 처칠, 토니 블레어, 제게 바라 등 인물들의 석유 관련 사건들과 이집트의 영국 도발, 일본과 미국 간 전쟁 등 역사를 살펴본다. 2부는 본격적으로 석유가 무기가 된 70년대 1·2차 오일쇼크, 프랑스의 IEA 가입 거부 등 사건과 전쟁을 일으키고도 노벨평화상을 받은 사다트, 고유가 정책에 반발한 야마니 등 인물들을 짚는다.

3부는 80년대 아프가니스탄 테러의 시작과 유가 폭락 등이 담겼으며 4부는 90년대 이후 걸프전, 9·11테러 등 사건과 미국의 ‘세일 혁명’이 야기한 석유 시장의 변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다뤘다. <부키·1만8000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역  
엔씨백화점  
광주역점  
오리거리  
아로마라이프  
성요한병원  
유동거리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www.aroma-life.co.kr

FACE 메이크업만 하는 시대는 끝!  
이제는 BODY 메이크 UP!

☆☆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 보장 속옷 12년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가공  
원적외선 가공

대리점·총판문의 **1588-2219**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경일로 235 V&G빌딩 서울사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축복빌딩(도곡동 518-9)